

전지적 청년 시점

“들어주세요!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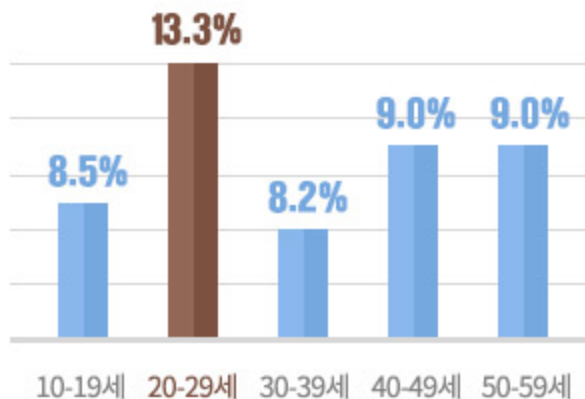
지친 마음의 소리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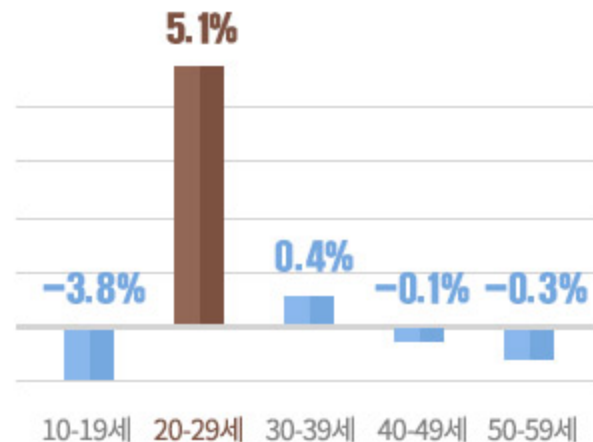
"곧 무슨 일이 생길 것만 같아!"

현대인을 괴롭히는 마음의 병, **우울증**과 **공황장애**.
20대 **청년**들이 많이 앓고 있단 사실, 알고 계신가요?

세대별 공황장애 환자
증가율(연평균)



세대별 우울증 환자
증가율(연평균)



출처: 윤소하의원실(2017.09.20.). 2017년 국정감사 보도자료 P2 [표-2.1], 발췌

**청년들은 심리·정서 문제의 주요 원인으로
경제 여건 차이, 미취업 상태 지속 등을 꼽았습니다.**

경제 여건 차이에서
오는 **상대적 박탈감**

진로선택 및 **과정**에서
야기되는 불안

10대 때와 다른
가족·친구 관계형성
어려움

장기화되는
미취업 상태





대학재학생 시점

**“동기들 사이에도 보이지 않는 벽 같은 게 존재해요.
스스름이와 행동을 통해 나타나는
사회적 격차 때문이죠.
거기서 오는 상대적 박탈감이 꽤 큰 것 같아요!”**



취업준비생 시점

**“취업난, 취업난 하잖아요!
준비기간은 날로 늘어나는데, 합격문자는 안오고...
늘 뭔가에 쫓기다 보니 더 예민해지고,
그게 심해지면 나쁜 생각도 먹게 되는 것 같습니다.”**



 비정규직 취업자 시점

“취업을 해도 상황은 마찬가지로. 직장 만족도는 떨어지는데, 딱히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. 친구들과 만나 공감해도 그게 다예요. 그저 허무할 뿐입니다.”



 정규직 취업자 시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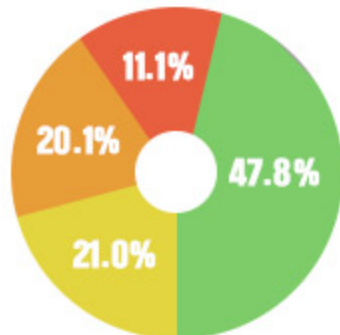
**“회사에 입사를 했다고 해서 불안하고 우울한 마음이
없어지는게 아니고… 그게 현재의 생활이 더~더~
힘드니까 그냥 억눌려지는 거죠.
사실 해결되는건 아니죠.”**

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청년 심리·정서 실태를 파악하고자
20대 청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.

**응답자의 53.3%는
정신건강 지원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.**

<20대 청년 심리·정서 실태 조사 주요 결과>

통합 위험수준 분석결과



■ 고위험군 ■ 중위험군
■ 저위험군 ■ 안전

고위험 집단

여성

고졸
이하

미취업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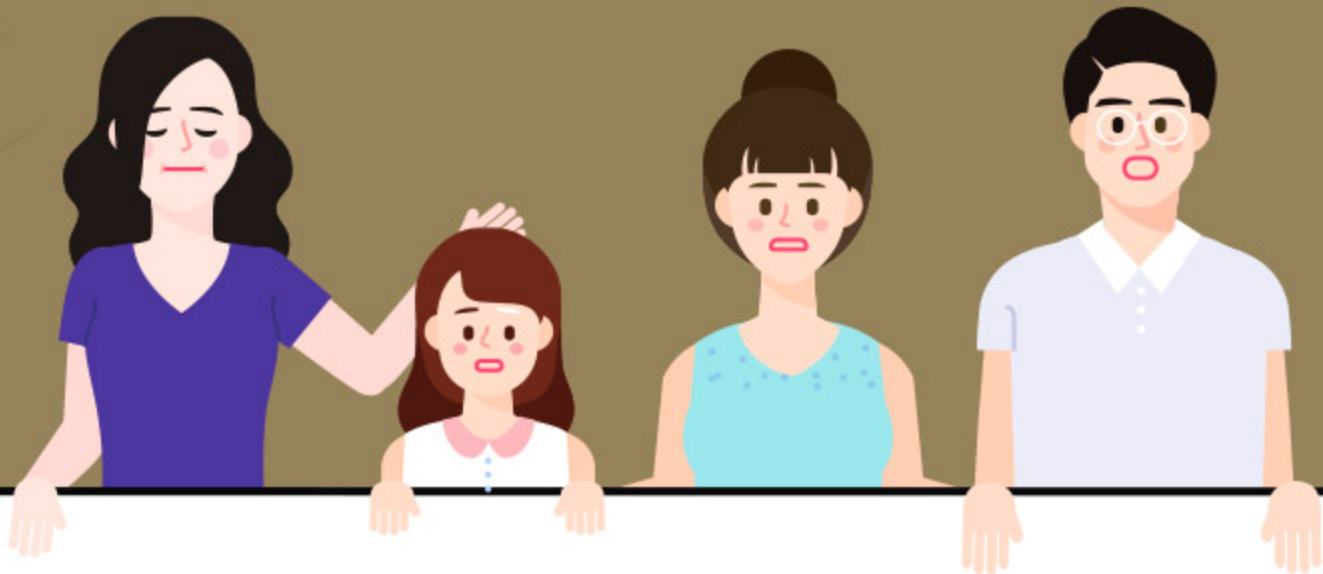
비정규직
취업자

고위험 집단 특징

- 사회적지지 낮음
- 자아탄력성 수준 낮음
- 부모의 경제적 여건 수준 낮음
- 경제적 박탈 경험 많음
- 일상 스트레스 높음



청년 심리·정서 문제가 사회 이슈로 불어지자 <심리·정서 문제 지원서비스>를 확대하자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데요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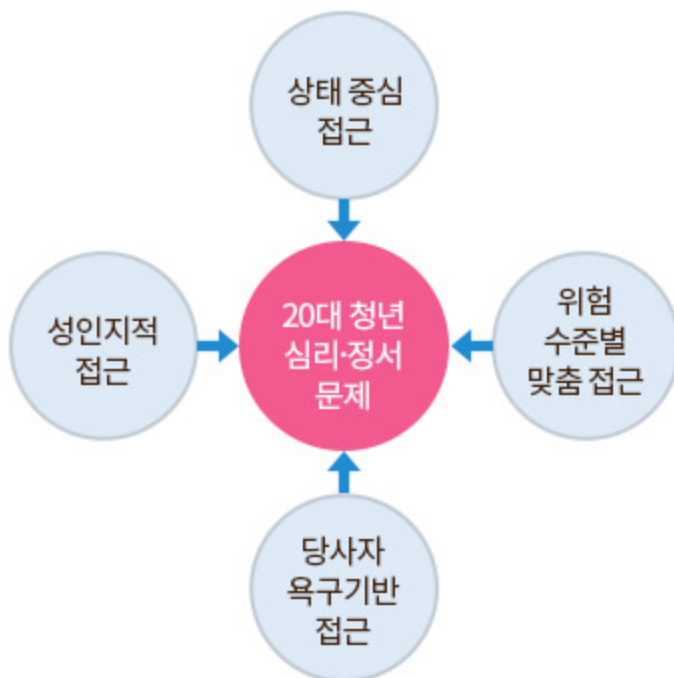


<중앙부처 청년심리·정서 문제 지원 현행 정책>

- ① 고용노동부 : 취업지원사업 내 청년구직자 심리·정서 프로그램 운영
- ② 보건복지부 : 정신질환자 발굴 및 치료지원 프로그램 운영
- ③ 여성가족부 : 24세 이하 심리·정서 프로그램 운영
- ④ 교육부 : 고등교육정책 일환의 대학평가를 통해 심리·정서 문제 간접 지원

현행 정책이 지닌 한계점을 보완한 보다 실효성 있는 청년지원 심리·정서 서비스가 필요합니다.

향후 정책방향 및 추진과제



- 1 구직 미취업자 심리·정서 지원 서비스 강화
- 2 대학 간 서비스 격차 해소 및 전문대, 대학원 재학생 심리상담 지원 강화
- 3 비정규직 취업자 EAP상담 지원 확대 및 서비스 강화
- 4 심리·정서 위험수준 및 대상자 규모 추정을 위한 기초자료 구축
- 5 20대 청년 건강검진 제도화 및 실시 예정 연령 조정
- 6 우울, 불안 등 주요 이상 증상 선별 검사 후 후속 연계서비스 강화
- 7 체계적·포괄적 20대 심리·정서문제 대응 방안 수립
- 8 지역기반 지원서비스 강화 및 채널 다양화
- 9 성별 영향요인의 차이를 고려한 지원 프로그램 개발·운영



**오늘을 살아가는 청년들이
더 밝고, 더 건강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
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함께 응원하겠습니다.**

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
『20대 청년 심리·정서 문제 및 대응방안 연구』